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0호 [무계 제25569호] 주제 106 (2017)년 3월 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북군상장 리영길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럭 휘날리고있는 대련합부대 지휘부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바쳐 사수해갈 무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강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모 베아리 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부대장병들은 설사 하늘땅이 뒤집히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믿고 따르며 한몸이 그대로 충이 되고 목란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이신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보위해갈 총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

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란, 위대한 장군님의 진필비, 혁명시적관,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권리해안의 작전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67년 9월 1일에 조직된 대련합부대는 우리 수령님께서 8차례, 우리 장군님께서 33차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11차례나 시찰하신 영광넉친 부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련합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역력히 어리여있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부대의 발전정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자라난 대련합부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왔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한 투쟁과 당이 맡겨준 사회주의대전설전투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우으로써 수많은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을 배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력대 지휘성원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것만 보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를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2011년 12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가 진행하는 훈련을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그날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4일전이었다고, 부대장병들은 언제나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혁명사적관과 연혁실을 인민군적으로 제일 잘 꾸린것 같다고 치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육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부대에서 군사부무를 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작전지휘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방어작전계획보고를 청취하시였으며 군사연구실, 시격관, 교환군무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파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들면 천검, 만경의 성새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밀적의 의지를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에서 군사연구실을 비롯한 훈련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았을뿐만아니라 올해 훈련의 해로 정해진 당의 의도에 맞게 훈련혁명 5대방침편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제전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적들의 변화되는 전쟁수행방식에 맞게 능숙히 활용할수 있도록 훈련을 짜고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당이 새롭게 밝혀준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에 립각하여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안목과 창조적능력, 배짱과 담력을 완벽하게 소유한 유능한 작전가, 싸움군지휘관으로 준비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일당백의 명장들로 역세게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틀어쥐고 부대장병들을 사상과 신념, 도덕의 강자로 역세게 키울데 대한 문제, 유사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도록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퇴의 선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불의에 공중감속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다격소멸할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

놓을데 대한 문제, 새로 장안제작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더욱 완성할데 대한 문제 등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식당, 수영장, 목욕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님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식당의 밥먹는칸은도보장대책을 잘 세움으로써 군인들이 뜨끈한 곳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였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취사원들의 손을 입일이 잡아주시며 어머니심정으로 군인들에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잘 해먹이라고 이르시였다.

군인 일인당 매일 250g씩 먹일수 있도록 지난해 농농사를 잘했다고 하시였고 행장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물고기와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고기를 보시고 이곳 부대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후방일군들이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잘 꾸려놓았는데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당에서 맡겨준 건설대상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부대의 일습씨가 다르다고 하시였다.

부대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하고있는 문화기재들도 자체로 생산하고있는데 질이 높다고, 다른 부대들에게도 공평해주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 일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